**토론 –** 철학리쳐드 슈스터만 – 방랑하는 철학자

13/12/2007 –편집, 번역/ 로저 폴 드로 - © Le Point - N°1839

**«좋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요구된다 »**

**플로리다에서 철학교수로 일하고 있는 리쳐드 슈스터만(58세)은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철학자이다. 그의 경력은 이스라엘 군인에서 보르도(Bourdieu) 연구자로, 미국의 현대 프라그마티즘에서 랩(rap)연구로, 푸코에서 일본의 선수행으로 그를 이끌었다. 현재 그는 서양철학에서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몸의 의식에 대한 중요한 연구서를 펴내었다.**

**Le Point (LP): 인간의 몸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리쳐드 슈스터만(R): 몸은 감각이 없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것, 즉 시체 또는 로봇 같은 것 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정신적이면서 물리적인 것으로, 본질적으로 활동적이며 감각적이고 항상 변화합니다. 몸은 정신과 반대되지 않으며, 우리의 느끼고 생각하는 능력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몸은 인각의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LP: 그렇다는 것은 몸이 끊임없이 몸 밖의 것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인가요?**

**R: 바로 그렇습니다. 몸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간의 본질적인 애매함을 표현합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세계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감각으로서 말이죠. 몸은 세계의 대상들과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은 그들의 균형성과 결합하며, 반성적인 사고의 필요 없이도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우, 상하, 위아래, 앞뒤의 의미를 설정하는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개념적 사고에 있어서 그러한 관념의 비유적인 확장을 그리게 됩니다. 몸은 시공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것의 위치를 통해 최초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LP: 당신은 주로 “몸(body)”대신에 “신체(soma)” 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의 철학적 전통에 있어서 “몸”은 보통 마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철학이 주장하고 연구하는 지각적인, 지적인, 그리고 생각하는 몸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더 전문적인 용어로서 고대 그리스 기원인 “소마(신체:soma)”를 사용합니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신체의 미학(somaesthetics)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미학은 인간의 감각적 미학적 감상의 장소, 그리고 창의적인 자기치장으로서의 몸의 사용을 탐험하고 경험합니다. 이론과 실천 양쪽의 비평적이고 개량적인 원리로서 신체의 미학은 우리의 몸에 대한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적 경험과 행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LP: 현재, 어디에서나 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는 전혀 없는 듯이 보이지 않나요?**

**R: 바로 그렇습니다. 신체의 미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몸이 이미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사회에서 “신체의” 의식은 우리의 몸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더 표준적 개념의 아름다움에 맞춰 몸을 매력적으로 가꿀 수 있을까라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의 인식과 실제의 육체적인 활동을 찾고 다듬는 것에는 거의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는 단순히 우리의 몸의 추상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쾌(pleasure)에 관련된 능력은 신체적 경험을 더 조심하는 것에 의해 증강될 수 있습니다. 몽타뉴은 우리는 적절한 질의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쾌를 두 배로 즐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과도한 신체적 쾌는 허둥지둥 산만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감각적 자극으로의 점점 증가하는 주목과 의존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선 수행은 조용한 호흡으로 잘 집중하는 것에 의해 엄청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LP: 신체의 미학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종래의 철학에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R: 많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아시아의 철학적 전통에서도 그렇듯이, 몸의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철학의 중심 목표인 지식, 자각, 덕, 행복, 그리고 정의를 생각해보면, 신체적 의식과 몸의 사용이 지각, 행동, 만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얼마나 이러한 목표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명백해 집니다.**

**LP: 그러면 윤리와 정치도 몸에 관련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의 가장 높은 차원의 사상은 언제나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한 사회적 생활의 형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가치는 어떠한 직접적인 법의 힘 없이도 그들의 힘을 우리의 몸에 영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배적 사념은 신체적 관념과 느낌으로 자신을 암호화하는 것에 의해 몸에 박힌 습관으로서 보호되며, 그것은 비평적 의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은 이성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니고, 깊게 뿌리 박힌 편견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몸에 의해 느껴지는 불명료한 불편함으로 우리의 신체적 느낌에 각인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직접적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견은 관용의 개념 같은 단순한 추론적인 논의에 의한 수정에 저항합니다. 관용의 개념은 편견적 경향의 내부적 변화 없이 이성적인 레벨에서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므로 그러한 편견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조종하고 없애는 첫 번째 스텝은 신체적 깨달음을 향상시켜 그들을 우리 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LP: 당신의 철학적 여행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음의 스텝은 무엇입니까?**

**R: 나의 철학은 여러 스타일에 있어서 여러 대륙에 걸친 많은 언어에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방랑하는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는 새로운 경험을 행해 스스로를 계속 열어 둘 것 입니다. 왜냐면, 그 경험들이 나의 아이디어의 재료이며 나의 일을 편안함으로 이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삶이 실천을 향한 구체화와 방향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는 것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요구됩니다. 나의 신체의 미학 연구는 나의 이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나의 사는 경험과 개인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수업은 경험적으로 신체적 의식을 발전시키는 실천적 워크샵과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융합된 포맷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금후의 철학적 탐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의식하기 (신체의 미학을 위한) », 리쳐드 슈스터만 지음. 니콜라스 벨라스카스　불역.**

한글번역/ 이혜진